

장개석 군이 모택동 군에 밀려서 대만으로 후퇴를 하였을 때, 많은 군인들이 처음으로 수도라는 것을 보았다 한다.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신기함에 눈이 휘둥그레진 군인들... 그런데 철물점에 그 수도꼭지가 있더라.

얼른 그걸 사다가 벽에다 박아서 틀었더니 물이 안나오는데 아닌가? 그래서 속았다고 그걸 판 철물점에 충격을 가했더라. 이어령 선생이 작년의 인문대학장단 협의회 발제사에서 해 주신 이야기이다.

우스운 일화지만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은 거의 그렇지 않은가 싶다. 요즘은 학술진흥재단 인문학단장으로 2년간의 파견 업무를 시작하면서 교수로서는 겪지 못하던 많은 일들과 부딪고 있다. 특히 기초학문을 지원하는 일을 주임으로 하는 학술진흥재단, 그 가운데서도 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지원을 맡게 되면서 새삼 위에 든 일화를 자주 상기하게 된다.

기초학문, 그 가운데서도 인문학은 수월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수월지로부터 복잡한 처리과정과 배관시설을 거쳐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수월지의 거기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물을 운반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하기 마련이다. 자연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기술과 응용학문에는 환



불자 세상보기

성태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 꾸준히

호를 하면서 수월지에 해당하는 인문학 등에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수월지가 고갈되거나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라.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요즘은 "인문학의 위기가 다", "인문학을 새롭게 진흥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 동안 우리들이 소홀히 했던 수월지를 다시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그 수월지를 담당하고 있던 인문학자들 스스로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만 맡기고 무관심했던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반성인 것이다.

문제는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급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몇 년을 계속 쏟아 부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학문 성격이 우리의 문제에 바로 효용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인문학의 대표 격인 철학을 이야기 할 때, "철학은 빵 굽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이 꼭 들어갈까?

조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문학의 투자에 대해 금방 회의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투자하니깐 대다 하지" 하는 투정을 부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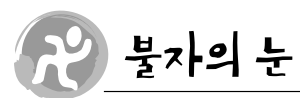
이런 조급함에 대하여 다시 '콩나물 키우기'의 비유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콩나물을 기를

때는 계속 적당하게 물을 주어야 한다. 물론 위에 다 부은 물은 거의 다 밑으로 흘러 버린다. 그렇지만 그러는 사이에 콩나물은 크는 것이다.

만약 거의 밑으로 샌다고 물을 아예 안주거나, 물을 막고 물을 퍼부어보라. 콩나물은 말라 죽거나 썩어 죽는다. 그렇듯 인문학 등의 기초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쁘게 바쁘게, 빨리 빨리라는 말로 현용될 수 있는 현대 사회! 위에 든 일화들이 어찌 꼭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육성에만 해당하는 비유이겠는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키워야 할, 미래를 풍요롭게 할 새싹들을 "이걸 언제 키운다 말아야!" 하면서 아예 알아버리는 일은 없는지? 화려한 수사를 곁들인 선정적 구조에 휘둘러, 정당한 절차와 수단을 무시하고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그 결과만을 얻으려는 방식이 만연해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식을 중시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몸매 배도룩 익힌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장의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그 효용성을 밑받침하는 중요한 가치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불자의 눈

생활 현장도 '안거' 자리다

5월 31일 전국의 선원과 시민선방 등에서 일제히 안거가 열렸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안거는 불교의 중요한 전통이다. 불교는 수행이라는 직접적인 구도행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음'을 증오하는 종교다. 안거는 집중적인 수행 방법이다. 부처님 당시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형성된 제도라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안거는 여름과 겨울 석 달씩 집단적인 집중수행을 하는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안거가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안거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의 운영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사회의 생활 구조상 불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면 생활의 현장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안거에 들 기회가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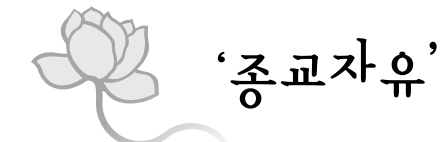
안거의 목적은 '한 소식'이다. 부처님께서 새벽별과 눈맞추며 우주의 진리를 깨친 것처럼 깨침의 소식을 듣기 위해 필멸 짧은 기쁨에 발을 담그는 심정으로 정진하여 자성을 내증하는 한 소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거는 격식과 형식보다 투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일상에서 한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생활 현장에서도 안거의 정신은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생활이 따로 있고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거수일투족,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참나다. 선원과 선방에서 뜨거운 열기로 정진하는 수행자들만큼이나 일상에서도 성실적절한 하루일과로 정진하는 불자들이 늘어난다면 날마다 안거가 이 세상은 머지않아 불국토가 될 것이다.

동국대 쇠신 토론이 먼저다

동국대학교가 학제 개편과 관련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오영교 총장이 취임한 이래 학교발전 위한 쇠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제 개편과 학과 정원 조정 등이 원인이었다. 이미 불교대학이 개편과 관련, 학생과 교수 학교 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불교학의 퇴보를 염려하는 우리 속에서 전과금지, 재학생 전원 장학금 수여, 기숙사 및 생활생활 의무화, 정원 감축,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등을 골자로 개편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일반 학과에 대한 호환과 개편을 두고 학생들과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 구조로 빨려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학교측은 충분한 타당성과 절차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합의 과정이 생략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니 염려스럽다.

동국대학은 조계종의 총림대학이라는 태생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일반 사학과는 달리 불교정신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설립의 동기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설립목적에 대한 부합여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쇠신 정책도 학교의 정체성 다지기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모색이라는 명분이 분명한 만큼, 일방통행식의 집행보다는 보다 깊은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짓는 인내가 요구된다.



'종교자유' 칼럼

14.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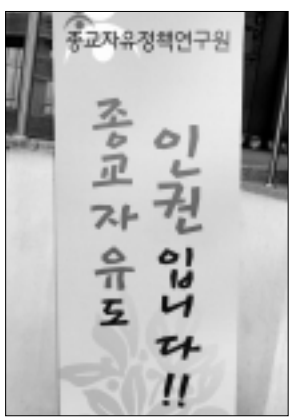
건학이념 위해 종교인권 희생 시켜선 안돼

이번 학기 초 서울 은평구의 예일여중이라는 미션스쿨에 자녀를 보낸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한바다 상의도 없이 자신의 계좌에서 전송 가입 대금을 빼갔다며 하소연해왔다. 학교측은 지금까지 일반교과서처럼 관행적으로 공동구입 해왔으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태도였다고 한다.

신자들만 모이는 교회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20 이상인 비신자인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놀라기만 하다. 서울 시교육청은 이미 집행이 됐으니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 종교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학교에 민원을 제출하고 교육청에도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인권의 신도 부족하고 무원칙·무성인의 학교와 교육청에 아이들 교육을 맡기고 있다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말 역시 은평구에 있는 송실중학교의 한 교사가 학교내의 과도한 종교 강요 분위기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양심을 어겨가며 순진한 학생들을 특정종교로 몰아가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과목 단순 개설, 우등상 조건으로 성경과목 성적 우수 등 위헌 소지가 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캐시포터즈

채 여전히 강제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종교 단체 또는 기관에서나 합당한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특정 종교 교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대광고 사건으로 종교 강요가 인권침해인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종교인권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데도 기독교 학교들이 버티고 있는 근거와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헌법

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은 무지 아니한 억지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대등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것도, 두 자유가 같은 차원에서 논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점을 애써 감추려는 의도된 대국인 호도에 불과하다.

학생의 신앙(무신앙 포함)의 자유가 선교의 자유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협연권(嫌煙權)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협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논리와 유사하다. 강 군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퇴직학부모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립학교'라는 명분도, 재정적으로 거의 독립 수준인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편중된 제도나 정착된 지금 무의미해진다. 현재 사학재단의 종교학교 지원은 전체 예산 중 평균 1.8% 수준이며 그마저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나머지는 국고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이다.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단순히 종교사학이라는 이유로 종교를 강요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준화가 문제의 핵심일까? 그러나 종교사학들이 국고지원을 전제로 편중된 제도를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의해 특정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 내에 속하는 한, 사립학원의 건학이념보다 국가의 공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짓 모른 채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 것(단은 삼키고 쓴 것(종교적 진입)은 뱉는', 명분 없이 실리만 쫓는 이종적 인 행위로 몇몇만 할 수 없다. 학생의 종교인권 문제가 이해야 불거진 게 오히려 신기한 정도다.

'선 지원 후 추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 해결될 일도 아니다. 우선 편중과 미발로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선택이 보장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만일 본인 스스로 미션스쿨을 택했거나 입학 시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 교육의 명분과 근거가 될 수 있을 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나 신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자유까지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종교사학의 특정종교 강요에 대해 사회 여론도 3/4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교육 바로 세우기라는 국민적 권리를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과제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모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靈歌)든 100% 천도(天度)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모범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꼭 해줘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모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모범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며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중풍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박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공 고

● 지현스님 (60세 정도)
010-4509-5850/055-905-9633

2006년 4월 10일까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신 불지사 지현스님이 1년간 소식이 없으므로, 2007년 6월 20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경찰 입회하에 주인 임의로 법당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55-28번지
집주인 : 이영찬 051)502-5634